

안치홍 외로운 황금장갑… 2루수 2연속 수상



올해의 사나이들 10일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외야수 두산 김재환, 롯데 전준우, 지명타자 롯데 이대호, 1루수 넥센 박병호, 포수 두산 양의지, 골든포토 SK 한동민, 클린베이스볼 두산 이영하, 외야수 넥센 이정후 대리수상 강병식 코치, 넥센 김하성 대리수상 코치 홍원기, 3루수 두산 허경민, 2루수 기아 안치홍.

KBO 시상식 통산 3번째…올 0.342 타율·118 타점 활약 KIA 선수 중 유일…이대호 3개 부문 수상·두산 4명 ‘최다’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세 번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KIA 안치홍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2루수 부문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골든글러브 2연패이자 2011년까지 더해 세 번째 수상이다.

올 시즌 안치홍은 130경기에 나와 0.342의 타율(494타수 169안타)과 함께 23홈런 118타점을 기록했다. 발 뒤꿈치 부상으로 1루수와 지명타자로도 출전했지만 2루수로 452타석에 서서 팀의 주축 역할을 했다.

시즌 중반에는 4번에 자리를 하는 등 팀을 대표하는 타자로 우뚝 섰다.

또 올 시즌 프로 데뷔 후 처음 태극마크를 단 안치홍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전천후 내야수와 한국팀의 중심 타자로 맹활약하면서 금메달도 목에 걸었다.

지난해 ‘6표 차’의 접전 속에 NC 박민우(134표)를 누르고 골든글러브를 받았던 안치홍은 올 시즌에는 306표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골든글러브 2연패에 성공했다.

안치홍은 “감사하다. 올해 타이거즈 중심타선으로 활약할 수 있게 끝까지 믿어주신 김기태 감독님과 코칭스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광을 바칩니다”며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올해 이런 좋은 성적으로 시즌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에는 타이거즈 팬들이 끝까지 웃을 수 있도록 좋은 시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KIA는 ‘V11’을 이뤘던 지난해 안치홍과 함께 양현종(투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버나디나(이상 외야수) 등 5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5위로 추락한 올 시즌에는 안치홍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1루수 부문 수상자인 이대호는 올 시즌에는 지명타자 수상자로 호명되면서 14년 만에 역대 3번째로 3개 부문의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선수가 됐다.

1루수 4차례(2006·2007·2011·2017년), 3루수 1차례(2010년) 등 총 5차례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섰던 이대호는 이번 수상으로 1992년 한화 장종훈(1루수, 유격수, 지명타자), 2004년 삼성 양준혁(1루수, 외야수, 지명타자)에 이어 세 번째로 3개

부문 골든글러브 수집에 성공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1루수 박병호, 유격수 김하성, 외야수 이정후 등 세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두산 허경민은 3루수 수상자로 처음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올랐고, 두산 김재환은 금지 약물 논란에도 다시 시상식 주인공이 됐다. 외야수 남은 한 자리는 롯데 전준우가 차지했다.

3루수, 외야수 자리를 차지한 두산은 ‘골든 배터리’도 구성했다.

두산 에이스 린드블럼과 ‘FA 최대어’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고 있는 양의지가 각각 투수, 포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한편 부산지역 야구 후배들에게 2억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선 롯데 외야수 손아섭은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시상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로 행사장을 찾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의지 331표 ‘최다 득표’

‘당대 최고의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가 2018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의 영예를 누렸다.

KBO는 1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골든글러브 수상자와 득표수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선수는 양의지다. 양의지는 유효표 349표 중 94.8%인 331표를 받았다. 포수 부문 득표 2위 이재원(SK 와이번스, 11표)과의 격차는 무려 320표였다.

역대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는 2007년 외야수 부문 수상자인 이종욱(당시 두산)이 달성한 350표(유효표 397표)다. 2014~2016년, 3시즌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양의지는 2년 만에 황금장갑을 되찾았다.

/연합뉴스

‘승부 조작’ 이태양 “문우람 결백… 다른 선수 있다”

기자회견 열고 녹취록 등 공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과 전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문우람(26)이 승부 조작을 한 프로 야구 선수가 더 있다며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는 이태양에게 승부 조작을 제외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우람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한 성격이 컸다.

둘은 2016년 프로야구를 강타한 승부 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2015년 브로커 조모씨는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며 문우람과 친분을 맺었다.

문우람은 프로 입단(2011년 넥센) 동기인 이태양을 브로커에게 소개했고, 이후 문우람은 이태양과 브로커에게 먼저 승부 조작을 제의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내용이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녹취록, 브로커 조모씨의 증



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인신문소서를 자료로 제공하며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브로커 조모씨가 이태양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여기서 조모씨는 이태양에게 “형을 한 번만 도와 달라”며 “별거 아닌 쉬운 일인데 그냥 1회에 1점만 주면 된다”며 다른 현역 선수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조모씨는 “A, B, C, D, E, 이런 애들도 다 한다.

C 개는 지가 직접 토트해서 지가 직접 베팅을 한다”며 이태양을 회유했다.

심지어 조모씨는 A의 동영상도 보여주며 “애는 워바운드 던지고 땅바닥에 던져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하지 않냐”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고 이태양은 주장했다.

이태양은 그러면서 “왜 이런 선수들은 조사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브로커 조모씨가 이태양을 승부 조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근거 없이 꺼낸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2017년 상무 소속으로 군인 신분이었던 문우람의 군사법원 1심 증인 신문에서도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 증인으로 나선 최모씨는 브로커 조모씨에게 승부 조작의 정보를 받은 것이 2015년 4월 E 선수의 경기라며 400만~600만원을 번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최모씨는 E 외에도 조모씨에게 정보를 받아 다른 현역 선수의 경기에 승부 조작 베팅을 했다고 밝혔다. 최모씨가 밝힌 그 선수들의 이름은 이태양이 공개한 선수와 일치한다.

/연합뉴스

추, 또 트레이드설

MLB닷컴 ‘가능성 있는 선수’ 꼽아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또 고개를 들었다.

MLB닷컴은 10일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윈터 미팅에서 다룰 현안들을 분석하며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를 꼽았다.

텍사스에서는 추신수가 거론됐다.

메이저리그 구단 관계자, 에이전트 등이 모이는 윈터미팅은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추신수 트레이드는 이번 윈터미팅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MLB닷컴은 “텍사스에는 추신수와 조이 겔로, 노마 마자라, 딜라이노 디실즈, 윌리 칼훈, 카를로스 토치 등 충분한 외야 자원이 있다”고 외야수가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텍사스가 지급할 추신수의 연봉이 2년 4200만 달러로 줄었다. 다른 팀들이 추신수에게 관심을 보일만 한 요소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